

## 경제산업성, 해외진출자금 조달제도 신설

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해 채무를 보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

### □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 중소기업의 과제

- 내수시장 위축으로 국내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△정보, △자금, △인재 확보 문제 등으로 해외진출을 꺼리고 있어,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산성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제도를 신설
-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인구감소로 인한 국내수요 축소, 신흥국시장 확대, 대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거래구조의 변화 등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
- 산케이신문의 기업조사(116사대상)에 의하면, 2012년에 해외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70%로, 국가별로는 중국(65사), 인도(52사), 인도네시아(41사), 베트남(37사) 순임
- 경산성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,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해 채무보증을 서줌으로서 원활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

-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지통화자금에 필요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환율 등의 규제로 자금Loan에 한계가 있음
- 자금차입을 위해서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장(L/C)이 필요하지만, 설령 L/C가 있더라도 신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는 한계가 있음

## □ 해외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경산성의 대책

- 경산성은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일본정책금융금고가 채무 보증을 서줌으로써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통화의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「중소기업경영력강화지원법안」을 12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
-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이 사업 확대를 위해 급여 등 현지통화가 필요하지만,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자금 차입에 애로를 겪고 있음
- 이런 자금조달 문제해결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**일본정책금융금고의 채무보증 업무범위를 확대**
- 국내 민간금융기관이 일본에 있는 본사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에게 용자해 주는 신용보증 확대 등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시켜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

## □ 시사점 및 평가

- JETRO 자료에 의하면, 11년도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규모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어 경산성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

- 일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, 한국에 이어 2위를 차지
- 베트남에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한 우리중소기업들도 일본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으로, 경산성이 발표한 대책을 참고하여 지원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

#### <참고자료>

- 日経新聞「経済産業省, 海外進出の中小企業資金調達支援 日本公庫が債務保証」(2011.12.29)
- 経済産業省「中小企業政策企業力強化部会 中間発表(案)」(2011.12.14)
- 産経新聞「海外に活路を求める姿鮮明, 有望市場は中国, インド」(2012.1.3)